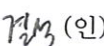



## 제363회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보고안건 제2024-20호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요건에 관한 건		
상정자	이사 강규형, 이사 류영호, 이사 신동호, 이사 이준용		
일시 및 장소	2024. 11. 1.(금) 16:03 ~ 18:17,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7명	결석 인원	2명
참석자	강규형 이사, 김선남 이사, 류영호 이사, 문종대 이사, 신동호 이사, 이준용 이사, 조호연 이사		
회의 결과	1. 제2024-20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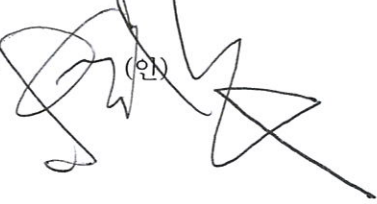
2024년 11월 21일

이사장 유시춘  (인)

이사 강규형  (인)


이사 류영호  (인)


이사 박태경  (인)

이사 이준용  (인)

이사 김선남  (인)

이사 문종대  (인)

이사 신동호  (인)

이사 조호연  (인)

제 363 회

# 이 사 회

- ◆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 16시 00분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 개 회 ..... 1

II . 인 사 ..... 7

III . 전 차 의 사 록 확 인 ..... 8

IV . 상 정 안 건 ..... 9

〈보고안건〉

제2024-20 호 : 이 사 장 직 무 연 장 무 효 및 자 격 요 건 에 관 한 건 ..... 10

V . 폐 회 ..... 72

(개회 : 16시 03분)

## I . 개 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의장님, 성원보고 드릴까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해 주십시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오늘 이사회는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해 이사회 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이사장님이 지목한 김선남 이사님께서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가운데 유시춘 이사장님과 박태경 이사님을 제외한 일곱(7)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없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63회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 이준용

개회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그러십시오.

○ 이사 이준용

반갑습니다.

유시춘 이사는 왜 안 나오셨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사유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 이럴 때만 안 좋아요?

○ 이사 이준용

아니,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이번 주 내내 사무실에 안 나오셨습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이번 주는 회사로의 출근은 없으셨습니다.

○ 이사 이준용

계속 안 나왔다는 얘기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이번 주는 안 오셨습니다.

○ 이사 강규형

월·화·수·목 다요? 금 다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만 월요일날 대외활동은 있으셨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대외활동은 한 거네요.

○ 이사 이준용

코로나라면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유시춘 이사에 대한 문제로 우리 이사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래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만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EBS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저는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EBS 바라보는 시각은, 'EBS 이사회 이사들은 법인카드로 정육점 가고 반찬 사고 빵, 과일 산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걸 털지 않으면 우리 EBS 이사회가, 또 EBS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최고의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적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시다만 이게 신문지상에서,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검찰에서, 권익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 기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좋습니다. 불법사용 안 했다고 침시다. 그러면 유시춘 이사가 와서 ‘나 그런 사실 없고,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양심적으로 부끄럽게 사용한 적 없다.’라고 최소한도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고백해야, 고백해야 그게 공인으로서의 합당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 문종대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이사 이준용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이사 문종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것 같은데.

○ 이사 이준용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한 거고, 그리고 오늘 이사회는 그래서 꼭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소집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오늘도 또 지난번마냥 이런 이사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이사장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사회 장으로서의 나와야 되는 거죠. 일개 이사라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스스로 이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면서 김유열 사장님께 여쭙보면, 법원에서 유시춘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사님께 오는 그 답변서 받으셨죠?

○ 사장 김유열

저희들한테 어떤..

○ 이사 이준용

선임 과정에,

○ 사장 김유열

검찰, 검찰에서..

○ 이사 이준용

예, 검찰에서. 예.

○ 사장 김유열

EBS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 이사 이준용

EBS는 송부되지 않았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EBS에서 지금 답변서가 날라왔던데요. 보니까.

○ 사장 김유열

예?

○ 이사 강규형

답변서가 날라왔던데요.

○ 사장 김유열

무슨 답변서가 날..

○ 이사 강규형

답변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보냈어요, 답변서를.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라고, 11월 8월  
까지 늦추겠다고 지금 이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10월 31일날 보낸 답변서인데, 그럼  
이거 사장님 모르고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낸 겁니까?

○ 사장 김유열

무슨 말씀이신 거죠?

○ 이사 강규형

그거 답변서 보세요.

지금 시간 끌기 지금 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 사장 김유열

아니, 검찰 기소 건 아니잖아요.

○ 이사 강규형

아니, 그거 말고요.

○ 사장 김유열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 이사 강규형

잠깐. 지금 그 질문 한 거 아니에요?

○ 이사 이준용

이거 질문하는데 말을 끊은 겁니다. 예.

○ 이사 강규형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질문했어요, 지금.

○ 사장 김유열

이사회 무효 가처분 소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사 이준용

예. 그거 질문하는 참에 강규형 이사가 중간에 들어와서, 예.

○ 사장 김유열

제가 방금 전에 검찰에서 낸 거냐고 여쭙봤더니 그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답변서를 조법에서 작성을 해서 1차로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그런데 지금 유시춘 이사에 관한 건데, EBS가 지금, EBS면 사장님이 대표니까 EBS가 이걸 대행해도 되는 겁니까?

○ 사장 김유열

저를 피고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 이사 강규형

누가요?

○ 사장 김유열

EBS가 정한 게 아니고, 아마 소송하신 분들과 변호사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 이사 강규형

아니요 사장을 적시했을 리는 없고,

○ 사장 김유열

EBS 대표.



○ 이사 강규형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를 누구로 지금 하셨습니까?

○ 이사 이준용

피고는 ‘유시춘’으로 한 건데, 그게 아마 법령상 대표가 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 아마 그게 통지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사장 김유열

아니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무효 확인 소송 본안소송의 피고이고, 가처분 소송의 피신청자로 적시돼서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제가 좀 진행하면서 더 격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하니까 우리,

○ 이사 강규형

아니 근데, 전번도 그렇고 나오라고 하고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롱하는 것도 지금 한두 번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끌기 하겠다는 거 지금 뻔히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 철회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강 이사님, 제가 다, 기회 다 드릴 테니 우리 공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II. 인 사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우리 사장님, 김유열 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장 김유열

오늘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일단은 11월 중순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학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방송기본계획 작업을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단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님들 의견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방송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미리, 정리되면, 아마 11월 중이나 아니면 12월 초 정도에는 별도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 소집 건은 저보다도 이사님들 간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이사님들 의견에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 Ⅲ. 전차 의사록 확인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이사회 의사록은 현재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이사회 때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IV. 상정안건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입니다.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2024-20호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요건에 관한 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공개하시죠.” “공개합시다.” 하는 이사들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보고안건 >

### 【 제2024-20호 :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요건에 관한 건 】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20호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요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을 발의하신 이사님께서서는 상정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 문종대

지난번에 하셨는데 또 합니까?

#### ○ 이사 이준용

지난번에 이사회 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 상정의 당사자인 유시춘 이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사회는 다시 또 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시간 속에서도 지날 일이 아니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21년 9월 15일부터 ’24년 9월 14일까지 이사로 보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온 정확한 공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우리 이사회 임기는 이렇게 결정돼 있었고, 그리고 이사는 방통위의 사고로 선출하지 못해서 등기이사기 때문에 자동, 상법에 의해서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연장되면 새로운 이사장은 그 연장된 이사들이 호선으로 뽑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뽑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전임 이사장이 임기 연장된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유시춘 이사가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방안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이사회 때 우리 감사님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출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이게 사실이 아니고 아니고’를 최소한도 이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이사회에 한 줄도 얘기하지 않았 습니다.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을 허위로 했다 라든가, 참석 대상자가 불분명하다든가, 혼자 식사했다든가, 제가 2021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밑에 할리스인가, 어느 다방에 와서 제가 무심코 커피 한 잔을 사서 EBS 카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건 혼자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사회사무국에서 거절해서

‘어, 그러냐. 고맙다.’라고 해 갖고 그것을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사회 사무국은 철두철미한데, 어떻게 유시춘 이사한테만 이렇게 넉넉했는지, 아주 너그러웠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A사에서 강규형 이사도 김밥 2,500원짜리 가지고 어느 카페에 가서 18,000원을 먹었다고 해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1,500원, 이 밑에 1,500원인지 1,300원인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거 혼자 먹은 거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럼 옆에 직원, 여기 아는 직원 불러서 두 잔 사서 마시면 되겠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의장인 김 이사께서 유시춘 이사를 좀 나오라고 하시고, 지금이라도 집이 가까우니까. 아니면 나올,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이사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해야 방송기본계획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12월 가면 예산, 결산 이 모든 게 정말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때마다 이 문제 갖고 싸우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정말 그거를 좀 협조해서 우리 이사 9명이 그냥 터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님이, 아니면 감사실장이 있으면 회수 처분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 관련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나누고 나서 지난주에 요청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 이사 조호연

이 감사 결과 요청을 누가 했죠?

#### ○ 이사 이준용

제가 했습니다.

####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이준용 이사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님한테 여쭙보는 거예요.

#### ○ 감사 최기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을 때는 개별 건으로 보고하기도 했고,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보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상반기에 낸 것을 중간에 보고하는 형태로 일단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 이사 조호연

이번에 보고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감사실에 이사회의 요청이라기보다, 감사실에서 ‘상반기 거니까 상반기 결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자체 결정을 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 감사 최기화

예, 그렇습니다.

○ 이사 조호연

이사회에서 요청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 감사 최기화

감사보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가 판단해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면 오늘 나온 것은 감사실에서, 이사회 요청과 관계없이 감사실에서 자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 감사 최기화

보고를 하는 거죠. 공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 이사 조호연

보고가 공개죠. 효과적으로 보면 공개인데,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요청하곤 관계없이 감사실에서 자체 결정을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감사 최기화

예, 그렇습니다.

○ 이사 조호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것은 또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 이사 이준용

아니, 이 법인카드가 지금 본 안전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게 별개의 별 건이 아닙니다. 법인카드가 곧 유시춘 이사고, 유시춘 이사가 곧 법인카드입니다. 그건 나란히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이 문제에 정확히 보자면 객관적인 감사실에서 우리가 감사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거 갖고 논의도 하고 다 해야죠. ‘적법했냐, 안 했냐’는 그건 감사실 판단인 거고, 우리 판단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다른 이사님들께서는 우리 이준용 이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 문종대

문종대 이사입니다.

지금 이사장 직무연장 의결 무효 소송을 아마 네 분 이사님께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될 사안이고, 이 사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청탁금지법상에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되면 고양지청 2024○○000000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의 현재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그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될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이사장 참석 없이도 현재 직무연장 무효나 자격요건에 관한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사님들이 의결해서 5명 이상이 해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사장님은 그런 뜻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논의, ‘이사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직무연장에 대해서도 여기에, 직무연장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다시 판단을 다시 하셔서 의결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일인데, 이거 지금 계속,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이다. 논의다.

그다음에 이걸 지금 직무방해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저에 대한 직무방해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하루를 완전히 낭비하는 건데, 저는 이게 그렇게 긴급하고 또 그한 일인지 정말 잘 모르겠다. 더구나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놓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모든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류영호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금방 문종대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새로 결정하면 된다는 그 내용이, 그러면 그 연장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자는 얘기인지, 그럼 호선을 하자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문종대

저희들의 그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의결을 하고 싶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 의결이 잘못됐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내렸던 의결이. 그거는 지금까지 수 없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다음에, 호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호선을, 호선이 안 된다 라고, 그건 지금 해임을 하겠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해임이 되죠. 이건 자체, 자체적인, 자체 내의 우리 의결 사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의결을 내리는 데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사 류영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 해 주신 이준용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EBS의 규정에는 EBS 이사장 임기가 연장된다는 게 없습니다. 없고, EBS 이사장은 호선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있는 거 맞죠, 국장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맞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우리 강규형 이사님이 초창,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호선을 하든지 또 협의해서 하든지 이런 제안을 분명히 했음에도, 호선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규정에도 없는 임기 연장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호선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지도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께 우리 의뢰한 변호사님께서 사장, 이미 이 내용을 법리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도 유시춘 이사를 이사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수당이나 판공비나 또는 차량이나 또는 사무실 등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장님께 보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우리 여기서 임기 연장으로 의결한 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답변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 사장 김유열

이사회 의결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근데 규정하고 다르게 결정했는데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 사장 김유열

그것은 저기, 이사님의 법률적인 해석이시고요. 다 이사님 간의 법률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회 의결을 따라서 집행부는 갈 수뿐이 없습니다.

○ 이사 강규형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것을 추인? 방조? 그거 한다는 게, 법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해 달라.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유시춘 이사 연장에 대해서 경영진이 100% 동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건 책임져야 될 사람의 범위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애초부터 법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쪼그마한 탐욕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EBS의 위상을 있는 대로 추락을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방에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유시춘 이사께서 전번 회의 때 본인은 ‘절대 배임이 아니고’ 어찌고저찌고, 그냥 펄펄 뛰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한 공문서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등 위반 고발 사건이 혐의 인정되어 2024년 10월 20일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 이렇게 적혀져 왔고, 형법 356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을 모르니까 형법 356조가 뭐냐 그랬더니,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시춘 이사는 자기는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그럼 뭘로 기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EBS건 뭐건 기소가 되는 순간에 직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을 때 업무 배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형법 356조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니까 ‘배임은 아니고 횡령이다’라는 것 때문에 ‘배임으로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횡령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을 하면서 밝히지도 못해요, 본인이. 떳떳하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나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금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방조동조하는 분들이 많고, 도대체 EBS가 어디까지 망가져야지 이런 행각들이 끝날 수 있을지,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다 책임들 지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경영진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고, 법원에 낸 답변서 보니까 이제는 더 다른 걸로 해석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영진도 나와야 되는데 부사장께서는 오늘 왜 안 계시죠? 그것부터 일단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일신상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 어렵다 라는 말씀은 지난번 이사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사 강규형

일신상의 이유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가정에 줌..

○ 사장 김유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지금 전해 들었고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 사장 김유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이사님 오해를 하시는데, 형법 355조가 횡령과 배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1항, 2항이 있고, 1항이 횡령에 관한, 356조는 처벌, 355조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이고, 355조는 1항은 횡령죄, 2항은 업무상 배임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6조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양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356조에 기술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피고로다가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어를 할 수없이 없습니다. 저보고 그러면 일부러 소송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EBS가 패소를, 지금 EBS가 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로서는 저한테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에 제가 피고로 특정되는 거 보고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제가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저를,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그래서, 그러면 법률적 방어도 제가 할 수없이 없는 상황이고, 평상적 수준에서 방어를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가처분은 한 달 플러스알파로 나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구든 어떤 경우든 범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저에 대해서 가끔은 제 명예와 관련된 말씀을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사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님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없이 없고, 제가 거기에서 어떤 방조를 하고 어떤 서포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님들의 이사회 의견과 의결을 존중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이사 강규형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이걸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소 그거는 이준용 이사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이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대상자가 유시춘 이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법원에서 그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유열 사장님께서도 확실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답변서에는 확실한 입장을 지금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기각을 요청한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55조, 356조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배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배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356조고, 355조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 사실은 연결된 거죠. 그런데 356조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유시춘 이사는 ‘나는 배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뭘니까?’ 그러니까 병어리, 꿀 먹은 병어리처럼 얘기를 안 하고 모른다 하는데, 356조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 그게 356조

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분리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말장난이잖아요. ‘배임이 아니라, 그러면, 횡령입니다.’ 그러면 횡령은 괜찮아요? 2개가 지금 ‘죄형량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아니,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 아들 마약 문제도 지금 6년간 말장난, 허위변명으로 몇 년을 끌었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도 질문이 나오니까 사장님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장님을 지금 괴롭히면서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그동안 권력이 많이 뺏겼을 해 뵈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한국 교육방송의 이사장이 그런 문제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가 나중에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준용 이사께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유시춘 이사에 대한 그걸로 했는데, 왜 피소인이 됐는지.

### ○ 이사 이준용

그거는 대표이사가 김유열 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사나 B사는 대표성, C기관은 대표가 C기관 이사장이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BS의 모든 책임은 김유열 대표이사가 지는 거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단, 똑같습니다. 지난번 '21년에 이사장 선임할 적에는 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선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전제조건 몇 개 달아서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을 의결했는데, 그러면 연장 의결할 적에 당사자인 유시춘 이사는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고 5명이 누군가가 이사가 찬성을 했으면 저 ‘그 의결은 합당하다.’ 의결은 될 수 있는데, 다수결로. 그때는 다수결이 유시춘 이사가 사회 보면서 본인까지 합해서 5명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인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진행하면서 자기 안전을 상정해서 자기 표로 통과시킵니까? 그때는 이쪽에 다른 이사들 한 사람의 더 이사가 보태서 그 안전을 연장 안전도 처리했으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 안전 처리에 있어서의 법적, 그다음에 의사 진행의 문제, 회의 진행의 문제점, 사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규형 이사가 주장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 ○ 이사 강규형

그 연장은 사실은 이사들 표결로 할 수가 없는데 강행을 한 거고요. 거기에 또 본인이, 제척사유를 가진 본인이 참여한 것은 이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쪽이 고소를 한 것은 김유열 사장님이나 EBS가 아니라 유시춘 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피소인이 총 책임자인 김유열 사장님이 피소인 중의 한 사람 또는 대표로서 된 거라, 김유열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 같으니까 이젠 된 거예요.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 이사 조호연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조호연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송을 걸고 회사를 지금 곤경에 빠트리고 있어요, 몇 분이. 뭘 알고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시춘 이사장이 대상 아닙니까? 유시춘 이사장이 대상인데 왜 사장이 곤경을 겪어야 되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법원의 판결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미리 다 알고보고 유시춘 이사장을 타겟으로 해서 했어야 되지, 회사에서 이것을 맡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고, 결국 또 회사가 이 일을 하면서 회사의 일을 업무 방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사장한테 계속 뭔가 해명을 계속 요구를 해요.

○ 이사 강규형

대표니깐요. 대표니깐요.

○ 이사 조호연

제가 말씀, 제가 발언 중이에요.

○ 이사 강규형

아, 글썄요. 코멘트 한 겁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도대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왜 회사가 이 사안에, 이사들 간의 그 사안에 있어서 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업무방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책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이사 강규형

업무방해요?

○ 이사 조호연

업무방해지 뭐니까?

○ 이사 이준용

그건 제가 업무방해라면 책임지고요. 우리가,

○ 이사 조호연

아니, 업무방해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 이사 이준용

김유열 사장께 이걸 한 게 아니고,

○ 이사 조호연

그건 미리 알아봐야죠. 미리 알아봐서,

○ 이사 이준용

아니, 알아봐서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해도,

○ 이사 조호연

알아봐서 했는데 왜, 왜 EBS가 피소가, 피고가 되죠?

○ 이사 이준용

아니, 누구를 해도 EBS에, 유시춘이가 EBS에 있는 한 EBS로 오는 겁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회사에 누를 미쳐서는 안 되죠, 이 사안을 가지고.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무슨 궤변을 말씀하세요?

○ 이사 조호연

궤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 이사 강규형

지금 EBS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유시춘 이사예요.

○ 이사 조호연

두드리지 말고 하세요.

○ 이사 강규형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예요.

○ 이사 조호연

손가락질로 하지 마세요.

○ 이사 강규형

뭘 두드리지 말아요?

○ 이사 조호연

말로 하세요, 말로.

○ 이사 강규형

나는 뭐 그런 권한 없습니까?

○ 이사 조호연

아니,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 이사 강규형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궤변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주니까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조호연 이사께서.

○ 이사 조호연

이사장, 이사장의 자격, 말하자면 ‘연장을 했는데, 이사장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회, 지금 강 이사께서 계속 이거는 이사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이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 이사 강규형

그런데 왜 호선으로 안 뽑아요?

○ 이사 조호연

말을 들으세요. 말하자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사장, EBS 이사장을 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EBS 이사회 규정에만 있습니다. 어느 법에도 어느 외부의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가 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사회 일은 이사회 내부에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회사한테 책임을 묻고, 회사가 피고가 돼서 회사의 재산을 저 해야 되고, 조법들이 또 이걸 갖다 법원에, 말하자면 해명 소송을 해야 되고, 또 방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어논리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회사의 업무방해지 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면 지금 C기관에서 하는 것들,



○ 이사 조호연

아니, C기관 얘기하지 마세요.

○ 이사 강규형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 이사 조호연

무슨 C기관 얘기를 해요? 여기는 EBS 이사회예요.

○ 이사 강규형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만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EBS의 대표는 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가만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뭘니까, 지금?

○ 이사 조호연

내가 언제 가만있으라고 그랬어요?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그거 아니예요.

○ 이사 조호연

EBS 이사회 문제를 왜 회사에다가 책임을 묻게 되고, 회사에서 그걸 대응해야 되고,

○ 이사 강규형

아니, 여보세요.

○ 이사 조호연

회사의 직원,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응하느냐고 업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 이사 류영호

제가 좀 얘기할게요.

회사가 왜 대응해야 되냐면, 회사가, 회사 안에 이사국이 있잖아요, 이사국. 그리고 EBS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열'라고 칭한 게 아니라,

○ 이사 조호연

정도껏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 이사 류영호

채무자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유열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도 어디까지나 EBS 안의 EBS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채무자로서 어떻게 판단하나 라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답변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 이사 조호연

답변을 딜레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계속 답을 했고,

○ 이사 류영호

지금 11월 8일까지,

○ 이사 강규형

아니, 여기 딜레이, 11월 8일까지 연장, 연기해서 보내줬다고 했어요.

○ 이사 류영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BS에, EBS에서 그 규정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 이사 조호연

EBS 회사와 EBS 이사회에,

○ 이사 류영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EBS에서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사님들, 이사님들, 순서 받아서 발언하십시오.

○ 이사 이준용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사회 규정대로, 지금 그거에 간단히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호연 이사님, 맞죠?

○ 이사 조호연

말해보세요.

○ 이사 이준용

아뇨, 대답을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 이사 조호연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 이사 이준용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호선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사장 선임권을 본인이 사회 봤고 본인이 찬성해 가지고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규정을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 이사 조호연

예, 그건 이준용 이사의 개인 의견이에요.

○ 이사 이준용

개인 의견이고, 본인은..

○ 이사 조호연

나는 동의 못 해요.

○ 이사 강규형

자, 조호연 이사님.

○ 이사 조호연

예.

○ 이사 강규형

그러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사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있죠?

○ 이사 조호연

..

○ 이사 강규형

있죠?

○ 이사 조호연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 이사 강규형

글쎄, 근데,

○ 이사 조호연

왜 내 의견을 물어봐요? 내 의견을 얘기해야,

○ 이사 강규형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무슨 얘데요? 내 의견을 얘기해야 반박할 게 뻔하면서.

○ 이사 강규형

이사,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 이사 류영호

이사들, 이사님들끼리

○ 이사 강규형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 이사 류영호

이렇게 다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쌍방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류영호

이제는, 이제 사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할 때 EBS의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판단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 이사 이준용

이사회 결정이 무효 아냐.

○ 이사 류영호

김유열 사장님은 그걸 판단을 인제,

○ 이사 이준용

5명이 하는데 자기가 사회 보고 하는데 맞는 얘기야?

○ 이사 문종대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죠.

○ 이사 류영호

이사국에 인정, 호선 안 하고 한 것도 인정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 이사 문종대

법원의 판결 기다리면 되잖아요.

○ 이사 이준용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 이사 류영호

그럼 빨리 그렇게 해 주세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사님들, 시간 충분합니다.

○ 이사 문종대

저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한 분 한 분,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니까,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한 분 한 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강규형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자꾸 그렇게 궤변 늘어놓으시니까.

자, 그럼 규정과 법에 이사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 이사 조호연

왜 자꾸 물어봐요? 그냥 하시라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답 못 하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 이사 강규형

답 못 하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 이사 강규형

그러니까 전번 이사회에 짜고 짜내서 나온 얘기가 ‘그럼 이사장 연장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또 다른 궤변을 얘기하시는데,

○ 이사 조호연

아니,

○ 이사 강규형

그러면 안 됩니다.

○ 이사 조호연

이사장 임기가 연장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이사 강규형

아니, 이사장 연장

○ 이사 조호연

그게 궤변이에요?

○ 이사 강규형

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이사 조호연

아니, 궤변이냐고, 그게.

○ 이사 강규형

그게 퀘변이죠.

○ 이사 조호연

아니, 이사장,

○ 이사 강규형

그러면 모든 임기에 뭐, 뭐, 연장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무슨 퀘변입니까?

○ 이사 조호연

자, 자, 강 이사님. 지금,

○ 이사 강규형

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유~ 저 지긋지긋해요.

○ 이사 조호연

자기 본인만 얘기하고, 아니, 얘기 좀, 나도 얘기를 해야지.

○ 이사 류영호

아니, 똑같은 말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류 이사, 류영호 이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 이사 강규형

그러니까 ‘이사장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냐?’ 물어보는데 답 못 하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물어보는데 대답이 아니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겠어요. 지금, 지금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회 이사들이 연장되는 규정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의, 이사장이 임기가, ‘임기’라는 말을 쓰는 용어가 어느 법에도 어느 규정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기가 만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사장이 임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임기가 끝났으니 안 된다는 것이고, 몇 분은. 저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준용해야 되느냐? 8기 이사회가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뽑았으니까 이 사람을 뭔가 불신임을 해 가지고 따로 꺼꾸러트리기 전에는 이 사람이 계속 이사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다는 법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사장 임기를 할 수 있느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2개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걸 가지고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맞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문 이사도 말씀하셨고 류 이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임기가 끝났다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사장 임기가 계속돼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사들만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자기들 주장, 임기가 끝났으니까, 임기 만료가 됐으니까 새로 뽑아야 된다는지 제척을 해야 된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논의의 시작이, 논의의 시작은 다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 이사 강규형  
다투지 않았나요?

○ 이사 조호연  
안 다뤘어요.

○ 이사 강규형  
근데 어거지로 연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 이사 조호연  
안 다뤘어요. 임기가 끝났다고 돼 있어요.

○ 이사 강규형  
아니, 어거지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냥.

○ 이사 조호연  
그 전의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사 강규형  
아이고, 그리고, 이사장 임기 연장에 관해서, 이사장 임기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또 하나는,



○ 이사 강규형

C기관에 보면 이사장에 관한,

○ 이사 조호연

아니, C기관은 여기, 얘기하면 안 돼요.

○ 이사 강규형

들어보세요.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 이사 조호연

그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 이사 강규형

왜, 그거는 이사장 임기가 연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궤변 좀 그만 좀 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궤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장에 대한, 이를테면 이사들은 임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규정이 있는데,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기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일의 경우에.

○ 이사 류영호

없는데 왜,

○ 이사 조호연

아,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이사 류영호

없는데 왜 연장했어요?

○ 이사 조호연

없는데, 없는데, 그러면 임기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 이사 류영호

아니, 이사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말씀대로, - 이사장 임기가 어땠어요? 이사장 임기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이사 류영호

이사장 임기가 이사회 임기 3년이죠, 그게 뭐예요.

○ 이사 조호연

이사회 임기, 이사회 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 이사 류영호

뭘 임기가,

○ 이사 조호연

8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재구성됐어요?

○ 이사 류영호

그거는 이사는 연장됐지만,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이사 강규형

그건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 이사 조호연

말하자면,

○ 이사 강규형

규정이 있으니까.

○ 이사 조호연

제가, 궤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 이사님,

○ 이사 강규형

궤변 좀 그만 하세요.

○ 이사 조호연

논리로, 논리로 말씀하세요. 그냥 궤변이라고 치지 마시고.

○ 이사 강규형

글쎄, 논리로 얘기하는데, 뭐 하나 증거를 갖고 온 적이 있으세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 이사 이준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 이사 강규형  
규정을 갖고 온 적 있으세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 이사 이준용  
아니 아니, 혼자, 제가 말 잠깐 드리면,
- 이사 조호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 이사 이준용  
아니, 매일, 말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들을,
- 이사 조호연  
말을 바꾼 적이,
- 이사 이준용  
매일 바꾸잖아.
- 이사 조호연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렇게.. 그러면,
- 이사 조호연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바꾼 게 뭐가 있는지.
- 이사 이준용  
자, 얘기할게요. 처음에,

○ 이사 조호연

그렇게 사람을 말로 그냥 규정하지 마시고,

○ 이사 이준용

예, 제가 얘기할게요.

○ 이사 조호연

증거를 대세요.

○ 이사 이준용

처음에 이사회, 유시춘 이사 문제로 논할 적에, 이사의 문제를 이걸 갖고 논의해서 저는 ‘이사 임기는 끝났지만 그 후임이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사장 문제는 다시 우리가 호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호선이냐? 8기로 계속 연장되는데.’ 연장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럼 그 주장을 하지, 왜 지금 와서 또 연장 건 갖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고요.

○ 이사 조호연

사람을, 사람을 참,

○ 이사 강규형

나중에는요,

○ 이사 이준용

그다음에, 이 규정에 의해서,

○ 이사 조호연

사람을 답답하게 하네.

○ 이사 강규형

‘이사장 임기 연장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는 그런 또 다른 궤변을 갖고 나오셨어요.

○ 이사 조호연

이제, 좋아요 이준용 이사 지금 말씀한 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사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사회가 계속되면서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논의를 하자는 거지, ‘이사장이 임기가 끝났으니 새로 뽑자’라고, 지금 이준용 이사는 제가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2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엉뚱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세요?

○ 이사 이준용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 이사 이준용

그다음에, 5인이,

○ 이사 조호연

내 얘기를 하면 그걸 새겨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그걸 그냥 치부처하고 ‘당신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 이사 이준용

속기록에 보세요. 다, 말 매일 바뀐 거.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사님들, 다른 이사님이, 다른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마시고요. 발언이 다 끝나면 이 마이크도 꺼주시고요. 예, 그렇게, 또 시간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 이사 조호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우리 조 이사님,

○ 이사 조호연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조 이사님, 제가 아직 말씀이 아직 안 끝났으니, 순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호연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말씀하시라잖아요.

○ 이사 조호연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법 규정이나 내부 이사회 규정이나 이런 거에도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어떤, 앞으로도 발생하는, 이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에 대비를 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자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이고 또 법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어느 한 쪽의 해석만 우월하다고 내세워서, 목소리 크게 내세워서 그걸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보면 사례 같은 거고 전례 같은 것인데, 그런 걸 만들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고려 없으시고 그냥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기다’, 그러면 우리는 아닌 쪽의 목소리를 크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이사회가 봉숭아 학당밖에 안 되죠.

○ 이사 이준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 주세요. 제가, 제가,

○ 이사 강규형

봉숭아학당 말씀 잘 했어요. 먼저,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잠시만요. 우리 강규형 이사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강규형 이사님부터 하십시오.

○ 이사 강규형

예. 조호연 이사님께서 지금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과 규범을 만들어야죠. 없으니까, C기관처럼 그런 규정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죠, 연장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 100% 동의해요. 근데 없어요, 지금.

그 참, 참.. 딱하십니다.

○ 이사 이준용

저 말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이준용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서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그래 간담회인데 이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유시춘 이사는 그때 참석해서 ‘여러분 얘기들을 다 이해한다. 이사님들의 얘기. 내가 회사 법무인가 어디 팀에 부탁해 냈다. 자료를 취합하면 다음 이사회 때 책상에다 깔겠다. 약속한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 뒤부터 매번 변화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가 이사장이든 뭐 고사장이 되든 원칙대로, 그다음에 이사회 균형, 운영 세칙에 다 법대로 했으면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자, 그럼 호선하자’, 이사회라는 건 8기고 7기고 6기고 없는 겁니다. 그냥 ’21년 9월 15일부터 ’24년 9월 14일까지로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하자. 의장을 하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 뭐든 다 하자.’ 그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사회 봐 갖고 일방적으로 우리, 나 퇴장한 다음에 ‘뽕뽕뽕’ 뚜들겨 갖고 5표로 통과했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지, 논의하고 싶지 않다? 언제든지 토론하고 논의하고, 함께 밤을 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하니까 안 나오고, 회피하고, 아프고, 어디 가고 아냐,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소집해서 나와서 밤새 토론합시다, 이거 가지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 이사 문종대

뭘 토론해요.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면 되지.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문종대 이사님, 끼어들지 마시고요.

○ 이사 문종대

죄송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다음에 류영호 이사님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예. 조호연 이사님께서 기억이 잘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 이사 조호연

이름을 좀 똑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이사 류영호

‘조호연’ 맞습니까?

○ 이사 조호연

부산분이어서 그러신가..

○ 이사 류영호

사투리가 좀 있어서. 그 정도는 알아들으면, 이해되면 되는 거지, 그걸 따진다는 게 조금..

○ 이사 조호연

분위기, 따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할려고 한 소리예요.

( 이사들 웃음 )

○ 이사 류영호

제가 원래 부드러웠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도 많이 하고, 또 좀 임팩트 있게도 얘기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조호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이 문제가 지금 사실 불거졌을 때 9월 13일 임기 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 왔어요,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당시 이사장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나갔다 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 그러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제 다섯 분이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서 그냥 다수의 횡포로 지금 이렇게 돼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규형 이사님이 그걸 많이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있으니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건데,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조금,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 이사 강규형

대안까지도 여러 개 제시를 했죠, 제가.

○ 이사 류영호

그리고 임기를,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유시춘 전 이사장님을 뽑아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뽑을 때는 분명히 3년이라고 생각하고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3년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3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또 다른 규정에, 규정에 호선한다고 돼 있으니 호선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연장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가 결국은 EBS 방송국 이사국을 관장하고 있는, 결국 EBS 대표이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조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이제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회고를 하려고 보면 선후와 맥락이 자꾸 뒤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계속, 지금 벌써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기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를 할 때, 이사장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연장이 됐는데 ‘이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출발선이 거기인 것과,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우리 호선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 출발선이 ‘이사장 임기가 끝났다’라고 시작을 하며부터 그 2가지 출발선은 다르다고 제가 아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거를 혼동을 하세요. 말하자면, 그 후에 임기 만료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계속 했는데, 논의를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답답해요.

첫 번째 임시이사회 소집할 때, 제가 그날 개인 사정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니까, 네 분께서는 그날 당장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사 한 사람이 참석을 못 하는 걸 굉장히 호기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장 임기 만료라는 주제로 논의할 수는 없다.’ 이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른,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 임기 만료라고 특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 논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영방송에 하나의 전례를 남겨야 돼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아, 이사장 임기는 만료된 거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전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로 얘기를 한다면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결국은 의견이 갈려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안 하고 응하지도 않고 불성실하고 회피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항상 선후와 맥락을 놓치고서, 우리, 내가 주장한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한 것만 밝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한 거는 안 밝히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건 없던 걸로 치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논의는 계속 백날 해봤자 계속 끝만 돌아요.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이준용 이사님, 번호를 타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이사 이준용

예.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 D회의장에서 소집할 적에는요, 조호연 이사가 안 나온다고 말씀한 이사회가 아니고, 그 D회의장에서 간담회가 무산된,

○ 이사 조호연

‘안 나온다’고가 아니라 못 나왔습니다.

《신동호 이사 퇴실(17:05)》

○ 이사 이준용

아니, 못, 무산된 다음에 그다음 주에 이사회 할 적에, 또 ‘날’ 가지고 조정할 적에 그때 그다음 날 못 나온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시의의 간이 좀 차이가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이사장 만료가 아니라, 이사 임기는 연장이 됐는데 이사장 문제를 논의하자 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논의, 논의하자고 시작하니까, ‘아, 무슨 논의냐? 8기 이사회에 연장됐으면 이사장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지.’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사회는 8기다, 7기다, 6기가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니까, 나 ‘만료’라는 걸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 임기 만료는 그 뒤에, 뒤에 안건 상정할 때 올린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사회 임기는 연장됐으니까, 이사장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 이사 연기됐으면 이사는 이사장은 자동 연기되는 거 아니야? 8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본인 조 이사님이 얘기한 거는 다 진리고, 우리는 본인 조 이사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너희 말만 얘기한다? 의사록, 속기록을 보면요, 갖다, 풀어놓고, 육성으로 틀어놓고 한번 봅시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신동호 이사님께서도 아마 정리를 해서 길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류영호 이사님께서 말씀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예. 저기, 두 분, 손 들어야 해 주십니다. 손 안 들면 안 해 주..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발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를, 발언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기회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신동호 이사 재입실(17:07)》

《이준용 이사 퇴실(17:07)》

○ 이사 류영호

예. 조호연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늘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이준용 이사님도 쪽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의 임기 관련해서 논의를 처음부터 하고자 했고, ‘만료’라는 얘기가 만약 우리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조호연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료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해 봅시다’라고 순리대로 또 말씀하셔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만료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송두리째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시춘 이사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지난번 임시이사회도 안 나오셨고, 그 이유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월요일날 대외활동 하신 분이 뭐 또 ‘건강상 이유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이사회를 무시하는 거고, 또 ‘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EBS 규정에 없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갖고, 또 현재 본인의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EBS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EBS의 대표이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이 문제가 빨리 가닥이 잡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조호연 이사님께서 발언권을 원하십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럼 문종대 이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문종대

논의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되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어차피 네 분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났으니까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면 이 문제는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좀, 좀, EBS의 다른 지금 현안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지금 계속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이사회가 오히려 EBS에 사실 짐이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강규형 이사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묻겠는데, C기관 이사장 임기는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C기관법에 있나요?

○ 이사 강규형

예.

○ 이사 문종대

C기관법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 이사 강규형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증거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 이사 문종대

아뇨. 그러니까 C기관법인지, C기관의

○ 이사 강규형

아니, 방송 전공하시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되죠.

○ 이사 문종대

아뇨. 이걸 법률이니까.

○ 이사 강규형

제가 증거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 이사 문종대

시행령에 있나? C기관..

○ 이사 강규형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이 전법입니다.

○ 이사 문종대

아뇨, 아뇨.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C기관법,

○ 이사 강규형

제가 그걸 제출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넘었잖아요.

- 이사 문종대  
C기관법을,
- 이사 강규형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 이사 문종대  
아뇨. 그게 아니라, 제가 C기관법 확인을 못 해 봐서, 오늘 지금 제가 계속 C기관법을 보는데, 이사장 임기도,
- 이사 강규형  
제가 찾아드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해주면 고맙고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나중에 확인되면 부탁드립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죄송합니다. 양자 간에 질의응답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 이사 문종대  
확인되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게,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C기관도, 이사도, 이사에 대해서만 있어 가지고 ‘이사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사장 부분을 제가 못 찾아서, 혹시 나중에 찾으시면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C기관 법에는 제가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이준용 이사 재입실(17:12)》

- 이사 강규형  
제가 카톡에도 다 올렸어요. 그때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발언권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예.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강규형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강규형

예. 몇 달 전에 올리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 가지고,

○ 이사 문종대

아니,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제가 제출까지 했잖아요, 증거로. 그럼 그때 문제를 삼으시든가,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좋다.’ 지금 문 이사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조호연 이사님은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지금 앞뒤들이 지금 안 맞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하지 말라고, ‘하라, 말아라’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고 본인들은 그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네요. C기관법 제6조 임원, C기관에는 ‘임원으로’, 자, EBS는 임원이, 이어나 이사장이 임원이 아닙니다. 왜? C기관은 이사장이 대표니까.

○ 이사 문종대

예, 알겠습니다. 제가,

○ 이사 강규형

C기관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조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즉, 1조에 있는 이사장도 임원이니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 이사 문종대

예. 제가 지금 제 법령에는 없어 가지고 이 법령이, 제 법령이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 이사 강규형

아휴- 그 법령은 뭐 다른 법령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금 몇 달째 얘기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 이사 문종대

C기관 법령에 봤는데 지금 안 보여서.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두 이사님, 사적인 결로 접근,

○ 이사 문종대

죄송합니다.

확인해 줘서 감사합니다.

○ 이사 강규형

사적인 게 아니라, 지금 대화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논리와 증거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갖고 온다고 했다가 한 번이나 갖고 온 적 있습니까?

[ 발언권 요청하는 이사 있음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이준용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이 소모적인 논리, 오늘 좀 저희들은 그치고 싶고요. 유시춘 이사가 나올 때, 나와야만 이 문제가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의장이 우리 감사님께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 전에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우리 조 이사님, 발언권 받으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께서 아까 감사 결과 내용을, 평소에는 연중 한 번 연말에 보고를 하는 결로 돼 있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지난 6개월 치를 감사실에서 자체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장 김유열

통상은 아마 결산 과정을 하면 1년을 결산을 할 때 아마 감사의견도 내고 감사를 1년 치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통상 해 왔습니다. 통상 해 왔고, 제 기억에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약간 인포멀하게 보고했던 사례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상반가·하반가 나눠서 보고한 전례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요청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마 감사님도 이사회에 보고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아마 이사님들이 ‘Okay’를 내시면 그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말씀 도중에 ‘이사회에서 Okay’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사장 김유열

이사회에 감사님이나 저는 사실 Observer입니다. 이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도 와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 당연직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규정에도 이사회에 감사와 집행부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도 제가 와 있는 건 이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와 있다고 논리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보고하는 것도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느냐, 안 받는 것도 역시 이사회가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사장 김유열

이사님들이 보고 안 받겠다 그러시면 보고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님, 그게 맞습니까?

○ 감사 최기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제가,



○ 이사 조호연

감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감사 최기화

그게 아마 저희들 방송공사, 교육방송공사법 및 정관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사 이준용

의무입니다, 의무.

○ 감사 최기화

거기에는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와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진술로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종에 감사보고도 같은 의견 진술로 같음이 되고요. 다만, 아마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아마 교육부, 그게 특감이었는지 감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부 조사를 받고 저희들이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아마 여러 이사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가지고 제가 감사를 종료한 뒤에 그 건만 별도로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판단에 의해서 건별로 할 수도 있고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월 20일 이전에는 결산은, 종합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감사 규정에 다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종합감사고, 그 외에 감사 결과는, 아, 감사한 내용은 어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보고안건으로 올리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또 하는 거고, 요청이 없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된 시기라고 판단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지금 이번 건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사회 요청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감사 최기화

그렇습니다.

○ 이사 조호연

이따 보고를 하실 때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는지를 반드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우리 이준용 이사님.

○ 이사 이준용

우리 이사가, 이사님들이 감사의 보고, 또 감사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할까, 그런 표현은, 어떤 이유에서의 감사보고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사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니냐’는 보고하면 됩니다. 그거는 사장께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독립기관입니다. 아주 독립기관입니다. 이사회와 그다음에 사장과 집행부와 모든 직원들을 견제하고, 예산과 정책 모든 걸 뭐라고 그럴까, 얼마나 잘 하고 있냐를 들여다보는 아주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오늘 감사보고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고요.

두 번째, 오늘 하나 다시 요청합니다. EBS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도박 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신속히 파악해서 다음 이사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지속된 지 1시간 20여 분 됩니다. 10분 휴정하고 5시 반에 다시,

○ 이사 이준용

아니, 진행합니다.

○ 이사 조호연

빨리 끝내지.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잠시 휴정.

○ 이사 강규형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고 그럼 되지 않겠어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10분 휴정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빨리 끝내죠 빨리.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5시 반에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아니, 근데 휴정이 좀 무서운 게요,

○ 이사 이준용

또 다른 얘기 나오니까.

○ 이사 강규형

휴정하고 들어오시면 얘기들이 다 바뀌어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는 무서워요, 그게.

○ 이사 류영호

일단 의장님이,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의장님이 하자는데 해야지, 어이 하겠습니까. 합시다.

《정회(17:22)》

《속개(17:30)》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영호 이사님 말씀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먼저, EBS 이사국에 질의합니다.

이사회 규정은, 규정 개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은 지금까지 이사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원격 통신에 관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당시 이사장님께서 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회 규정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외,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사회 규정에 없는 걸 갖고 지금 논란이 막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규정을 이제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려면 우리 이사회에서 그걸 의결해서 넣는 건지, 그냥 이사국에서 알아서 넣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보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아니 아니요. ‘알아서’이지는 않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그 정관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알아서 넣지는 않고요, 예.

○ 이사 류영호

정관 규정 개정, 예. 정관 규정 개정을.

○ 이사 강규형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제가 확인을 조금만 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관 개정할 거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사회에서 ’24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가 다른 별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사회 순서의 상정안건에는 없거든요. 없는 거 이거 할 수 있나요? 없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감사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결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다음 이사회 때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이준용 이사님 말씀 주십시오.

○ 이사 이준용

그러면 오늘 서면 보고를 받은 걸로 하고, 질의응답은 다음 이사회 때 감사님하고 나누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해서.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말씀 주십시오 신동호 이사님.

○ 이사 신동호

지금 류 이사님이나 이준용 이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다만 지금 이준용 이사님께서 제안하신 ‘오늘은 보고를 듣고 다음에 질의응답한다’라는 건 연속성 측면에서 밀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지금 벌써 5시 30분이고, 오늘 거의 체육대회 때문에 휴일 개념인데 임시이사회 때문에 사무처 직원분들 포함해서 다 나오셨는데, 이걸 그렇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속성으로 진행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듯 해서, 저는 류 이사님 의견대로 오늘 안전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 이 내용을 그대로 다음 이사회 때 안전으로 올려서 상세하게 보고도 듣고 질의응답도 하면 좀 밀도 있고 끊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동어반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동의합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

그다음에 하나 저도 조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관련된,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조 이사님께서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방어를 하게 하고, 이것 자체가 EBS에 상당한, 말하자면 누를 끼치는 행위다.’ 이런 워딩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EBS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과정이나 결과는 없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 하나의 결과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사실 종합감사가 좀 일찍 끝났으면 사장님을 저희가 이사회 때 모시고 여쭙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다음 이사회 때 했으면 하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앞서 ‘회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회피’라는 단어는 어느 한 이사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회피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다 되짚어 보면,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상황에서 매번 이사회를 진행해야 될 분이 참석하지 않았고, 물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 이해해야죠.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만 지난번 이사회 때 저는 진짜 거의, 병실에 있다가 나왔었거든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누워 있다가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도 그렇다고 하니 빨리 쾌차하셔서 다음 이사회 때는 꼭 좀 참석을 하셔서 ‘회피’라는 단어를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서 논의의 출발점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임기가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자, 이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이미 임기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어떻게 하자’ 이것이 옳으나. 이것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랬으면 그날 당일 그 의견이 나왔을 때 충분히 논의하고, 제가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안 된다면 다음 회차로 넘겨서 까지라도 논의를 좀 더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표결로 들어가자.’ 해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표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데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늘 그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고 물의를 빚는 상황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었고요.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이사장의 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강규형 이사께서 3가지 해법을 저희 단독방에도 올렸고 회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된 근거 규정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입장이다. 우리의 입장은 또 다르다. 내 개인의 입장은 다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속 논의 해 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빨리 표결로 진행하자.’ 이런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애초에, 그 당시에 3가지 해법 중에 다 마음에 안 드셨다 하더라도 5:4, 5명이면 결정이 나는 것이었으니까 ‘Okay. 좀 미흡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했더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과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회사에 더 누를 끼쳤는가.’ ‘누가 사장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는가.’ ‘누가 EBS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었는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때문에 EBS 사장이 대표자인 관계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쓰게 됐으니 이것이 EBS의 업무 방해고 누를 끼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개인 리스크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심지어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기소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죄라고 인정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소 자체에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께서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 큰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EBS에 누를 끼쳤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당사자가 본인과 관련된 표결에는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논의 좀 하자고 했더니 그 논의에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회의 도중에 성급히 자신의 문제가 곤란할 때는 폐회 선언을 하고, 번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말을 더 고약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참겠습니다. 또 제 말씀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EBS에 어떤 형태로든 누가 됐고 문제가 됐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반론할 것은 반론하고,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회피’라고 지적하신 걸 접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꼬리 잡자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EBS 이사회 이사고, 또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학급 회의에서도 반장이 자신에게 공격을 한다고 폐회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제 말씀이 좀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비극이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실은 감사보고서가 보고할 만한 내용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명성을 위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감사보고서를 지금 내는 것 자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듯이, 이것을 ‘정례 감사보고가 아닌 상황에서 감사보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대달라.’ 듣기에 좀 불편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설사 감사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사회에 보고할 만한 정도의 무게감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요구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제가 지켜야 될 사람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EBS에 누가 됐다’라는 얘기, ‘EBS 이사회가 EBS 회사의 짐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짐 되는 거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인과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 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시간도 그렇고, 또 논의의 연속성과 엄중한 논의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또 앞서 김선남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안전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을 오늘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해석까지 해 주셨으니, 감사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다음 이사회 때 진행하고 질의응답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개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 발언권 요청하는 이사 있음 ]

조호연 이사님 발언권 요청하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말을 하면 말 꼬리가 계속 이어져서 대답을, 신동호 이사께서 여러 번, 제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때마다 제가 뒤에 다시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누를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회의 전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신동호 이사께서는 제가 말을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가 잘못됐죠 이사장하고 회사하고의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이사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네 분께서, 몇 분께서 이사장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호소를 하든, 또 회사 쪽에 알아본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가급적이면 누를 끼치지 않는 최대한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회의장에 와서, 아까 사장은 Observer라고 얘기했는데, Observer라는 게 관찰하는 사람이죠, 사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회의 시간에 계속 사장한테 입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때로는 입장을 내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입장을 물어요. 그리고 사장을 막 호통을 치고 혼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사장의 문제제기 네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방식이나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보호하고 무슨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회사 쪽에 자꾸 번져서 얘기를 하시냐. 이 부분을 좀 자체를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번, 이번 보고안건으로 벌써 두 번을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유시춘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의에서 ‘유시춘 이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께서 소집한 회의에는 참석을 또 하세요. 또 유시춘 이사장께서 지명한 의장 대리는 지난번에 박태경 이사님, 이번에 김선남 이사님은 의장 대리로 또 인정을 합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유시춘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시춘 이사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이사 이준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야.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또, 유시춘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시춘 이사장이 지목한 의장 대리는 인정하는 이런 모순적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또, 의결안건도 아닌 보고안건을 놓고 두세 번씩 임시이사회를 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결안건이라면 의견이 갈려서 의견을 조정하느라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장할 수도 있고, 두 번도 세 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고안건은 말 그대로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 지성인들 아닙니까? 같은 안건을



놓고 몇 번씩이나 임시이사회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나요? 더구나 네 분 이사께서 이 문제로 소송까지 걸으셨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은가. 가처분 소송은 통상 한 달여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임시이사회를 연속으로 열어서 동어반복 회의를 계속하니깐 이게 시비를 가릴려고 하는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예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이사회 사무국의 회의비 예산이 오늘 회의로 동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될 판입니다. 회의 한 번 하면 거의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월 3회 하면 1,200만원, 네 번 하면 1,600만원입니다. 올해 EBS는 사장 이하 모든 구성원이 급여 반납 등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균형예산을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그동안에 회사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을 더 해라, 더 해라’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우리가 예산을 넘겨서까지 회의를 한다면 이거 EBS 구성원들한테 면이 안 서는 일이고 염치없는 일이 아닐까요? 특히 이번처럼 이사회 내부 문제로 동어반복하는 회의라면 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회의 그만했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동어반복 회의 개최에 반대합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이준용

제가,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진행에, 소집에, 유시춘 이사가 했습니까? 우리는, EBS 이사회의 4명이 요청했습니다. 유시춘 이사는요,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안 한다고 별 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호도하면 정말 이사회에서 이게 막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회의했는데 30만원, 반납하면 되는데, 유시춘 이사, 맨날 ‘해외여행 가자’ ‘워크숍 가자’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돈 없는 빚쟁이 회사가 무슨 해외여행이냐?’ ‘워크숍 가냐?’ 제가 다 막았습니다! 무슨 이렇게 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사회에서 합니까?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다음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신동호

말꼬리 안 잡으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말 머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지성인’ 말씀까지 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게 그닥 지성인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의가 왜 이렇게 반복됐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했을 때 단체로 나오지 않으셔서 간담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다음 이사회 때 가장 중요한 안전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모두가 동의해서 만든 날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저 아무 발언 안 하다가 마지막 발언할 때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늘 호칭은 ‘이사장’으로 하겠다.’고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나오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에게 부담되고 힘들고 괴로운 안전일수록 더 나와야 하는 것이 이사장의 직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방향성과 상관 없이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 이사님 말씀대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몇 번 했으니 회의비가 많이 탕진됐다.’ 저희가 회의비 타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과 관계에서 인은 없애고 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 1%도 동의할 수 없고요. 동의 반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의반복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석해서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Key를 쥐고 있는 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와서 우리가 얼굴만 보고 바로 갔어야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문 이사님 발언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끝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우리 문종대 이사님 말씀 주십시오.

#### ○ 이사 문종대

아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 모여서 한 논의는 이거였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에 이사장도 연동돼서 본다고 본 게 나머지 다섯 분의 이사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우리가 모두가 같이 논의를 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는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이후에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임시이사회를 계속 소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시이사회 소집이 사실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결된 사안을 다시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동의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 더구나 그 결의에 대해서 지금 소송까지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면 이 논의는 접어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이사 이준용

그 전에,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준용 이사님.

○ 이사 이준용

그 전에 논의할 적에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임시의장을 이준용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남 이사가 손 들어 갖고 5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정회, 끝나고 나가서. 그러니까 원인을 이렇게 제공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화난 겁니다. 그때 제가 진행해서 ‘표결해 갖고 뽑읍시다.’ 그러면 유시춘 이사를 추천했으면 5명이 표 들어 갖고 두들겼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준용 이사, 의장 하시겠습니까?’ 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태경 이사 옆으로 그러고서 정회하고 나가서 판을 또 뒤집었습니다. 이런 회의체기 때문에 제가 분개한 겁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다 이쪽에서 얘기한 건 ‘저건 틀린 얘기야. 저건 다 틀린 거야.’라고, 의견이 좀 다른 건데 그 의견 다른 것을 왜 수용을 못 해 갖고 함께 이렇게, 리더라면, 이사장 하고 싶다면 9명의 이사를 같이 통합을 해야지,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날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Okay, 하겠습니다. 의장, 임시의장 하겠다. 이사장 선임하겠다.’ 하고 나서 회의하고 들어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두들기고 끝났잖아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다음은 강규형 이사님 순서입니다.

○ 이사 강규형

아이고- 참, 그래서 유시춘 이사가 조항에 있는 내용까지 바꿔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 임기가 연장된다는 것을 이사회 임기가, 녹취록 보세요.

그리고 전전번 회의 때 불리하니까 폐회선언하고 이의가 들어오니까 ‘아,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아니에요.’ 했다가 몇 번 바꾸는 착란 행위까지 되고 나갔다가 또 번복을 하고, 이 무슨 추태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조 이사님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는 여러 방송에 이사회나 자문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사장과 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영진에 대해서. 근데 뭘, 경영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방송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건 유시춘 이사도 마찬가지인데, 없다 보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사회 에는요, 방송국 이사회는요, 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해서 묻고 의견을 얘기하고, 왜, EBS의 대표는 사장이니까. 그리고 부사장, 감사가 임원이니까, 이사회가 우리 이사들끼리 모여서

잡담하는 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지겨워요, 지겨워, 이제 계속 듣기도

해서, 사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추징금은, 추징금은, 추징금은 검찰조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라는 건 제가 다 얘기를 했고, 검찰조사는 국민권익위 조사나 자체감사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잘못된 사용이 있다고 그렇게 했죠? 나왔죠?

○ 사장 김유열

예.

○ 이사 강규형

예. 검찰조사와는 상관없이 추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유시춘 이사의 개인적인 권한입니다.

2017년에 A사 이사, 감사 다 통과된 것을 어거지로 해서 11명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E 이사 이하, 지금 C기관 이사장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추징을 했는데, 검찰조사는 커녕 검찰 기소도 없었고 결국은 검찰 불기소로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징을 했고 전부 다 200만원, 300만원씩 다 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추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 추징하셨습니까?

○ 사장 김유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사 강규형

예.

○ 사장 김유열

동일한 질문을 매번 이사회 때 하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다.

○ 이사 강규형

아니, 거기에 대해서

○ 사장 김유열

예, 잠깐만 들어보시죠.

○ 이사 강규형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사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 사장 김유열

제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에서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에게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검찰이 패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EBS가 하는 행위는 비용만 들어가고 허망한 행위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동어반복적으로 저도 답변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 이사 강규형

아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건데, 검찰조사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실례와 규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똑같은 변명만 하십니까? 맞지 않는 변명을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사장 김유열

그거는,

○ 이사 강규형

추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건, 거부하건’은 유시춘 이사의 결정입니다.

○ 사장 김유열

이사님, 이사님이,

○ 이사 강규형

자, A사 이사회는 그럼 왜 검찰조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다 추정을 했습니까?

○ 사장 김유열

그거는 A사 이사회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왜 EBS에 와서 하십니까?

○ 이사 강규형

지금 A사는 A사고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입니다. 같은 회사였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안 하시는 거는,

○ 사장 김유열

그 부분도,

○ 이사 강규형

그거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 사장 김유열

아니, 좋고 나쁘고, 그 부분도 그럼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세요.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면 검찰조사가 지금 몇 년을 끌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얘깁니까, 뭘니까?

○ 사장 김유열

제가 감사의 답변도 금액이 확정되고 사법부의 금액이 확정돼야지 주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이사 강규형

자체감사해서 징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감사님, 자체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게 위법입니까? 위법입니까?

○ 감사 최기화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를 할 게 아니고, 지금 규정에 따라서 추징을 하도록,

○ 이사 강규형

돼 있죠?

○ 감사 최기화

처분을 했습니다.

○ 이사 강규형

예. 자, 다음번까지 추징 안 되면,

○ 사장 김유열

저기, 그거는 이사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 이사 강규형

아이고, 이거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사회에 그거를 떠넘겨요!

○ 사장 김유열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 이사 강규형

감사님도 지금 그게 추징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 사장 김유열

감사가 진리예요? 감사가 법원입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면 대표가 지금 추정 안 하는 건 지금 잘 하는 겁니까?

○ 사장 김유열

아니,

○ 이사 강규형

잘 하는 거예요?

○ 사장 김유열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감사에.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그래서 감사께서 그거 안 받아들였는데 왜 그렇게 질질 끌어요?

○ 사장 김유열

질질 끄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 이사 강규형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오해 받는 겁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우리 사장님, 사장님 말씀 계속,

○ 사장 김유열

오해가 아니고요.

○ 이사 강규형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사장님 말씀 계속 하십시오.

○ 사장 김유열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 사장 김유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 이사 강규형

그러고,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 사장 김유열

잠깐 얘기 좀 들으세요.

○ 이사 강규형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 사장 김유열

제가 이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방어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고소하신 분들이 승소하시, 승소를 하시면 제가 사실 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EBS가 승소를 하면 고소한 분들 이사님들께 제가 아주 난망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 이사 강규형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사장 김유열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 이사 강규형

고소고발은 자유입니다.

○ 사장 김유열

말씀을 드리면,

○ 이사 강규형

그, 졌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강규형 이사님, 일단 사장님 말씀을 듣고,



○ 이사 강규형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사장 김유열

아까 그 얘기는 다 드렸으니깐요, 그럼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경우이든 이사님들이 법원의 판단에 쿨하게, 좀 이렇게, 제가 근데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벌써,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피고인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사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사님들 간에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 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이미 최종의 제 입장을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 이사 강규형

그게 잘못된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사장 김유열

잘못됐어도,

○ 이사 강규형

검찰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례도 그렇고.

○ 사장 김유열

그건 강 이사님의 생각이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 이사 강규형

나만의 생각 아닙니다.

○ 사장 김유열

하여튼,

○ 이사 강규형

나만의 생각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물 타기 하지 마세요.

○ 사장 김유열

무슨 물타기를 합니까.

○ 이사 강규형

물타기 하지 마세요.

○ 사장 김유열

그럼 패소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강 이사님, 강 이사님, 우리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 발언권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 사장 김유열

그래서 제가,

○ 이사 강규형

아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집행 안 하는 거는, 그 뭐니까, 그게?

○ 사장 김유열

아니, 내가 강 이사님 명령에 따라서 집행해야 됩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강 이사님, 강 이사님,

○ 이사 강규형

이유를 댔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못 하잖아요, 지금.

○ 사장 김유열

저기,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오더를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 이사 강규형

당연하죠

○ 사장 김유열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 이사 강규형

‘이사회 결정’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이 양반은 또, 이분은 이사가 사장한테 뭘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이에요?

○ 사장 김유열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에 관계된 얘기를 사장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 이사 강규형

이건 행정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강규형 이사님,

○ 이사 강규형

이사와 관련이 없어요

○ 이사 신동호

강 이사님.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발언의 기회를,

○ 이사 이준용

저만, 제가 하고, 오늘 감사보고는 다음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 이사 류영호

제 발언..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그러면 지금 저에게 발언권을 신청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우선 신동호 이사님 발언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아니, 강 이사님 좀 진정하시고요.

○ 이사 강규형

언제나 감동을 주는 발언하시기 때문에 듣고 가야겠어요.

○ 이사 신동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가까운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저 정도의 언급밖에 할 수 없고 저 정도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송과 관련된 사장님의 말씀, 그 우려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가 격화되다 보면 엉뚱한 데 불뚝이 튀어서 거기서 격발이 되는 수도 있는데, 강 이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명쾌한 부분이 명쾌한

루틴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이 부분을 지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입장 표명을 이미 사장께서 하셨는데 또 다시 반복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서로 간의 감정 소모가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인데, 앞서 이준용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제안했습니다만 감사보고서 보고를, 감사결과 보고서를 다음 이사회 때 하기로 했으니 그때 이 문제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후 논의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E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또는 향후 EBS가, 국정감사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발전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도 이미 6시간 넘고 했는데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습니다. 아, 이진 김 이사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감정 조금 가라앉히시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다음 이사회 때 좀 더 깊이 논의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 《강규형 이사 퇴실(18:06)》

#####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그런데 지금 류영호 이사님하고 감사님께서 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류영호 이사님, 먼저 하십시오.

##### ○ 이사 류영호

일단 사장님께, 사장님이 강규형 이사님 발언한, 충분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를 위한 방어권 행사인지를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뭐랄까,

##### ○ 사장 김유열

가처분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이사 류영호

두 개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에 대한 추장을 하라는데 안 하고 있는 거와, 또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또 11월 8일까지 딜레이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금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EBS를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지, 유 이사를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지, 이게 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좀 EBS를 이해하고, 또 EBS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아까 뭐

‘한 달 플러스’ 이랬는데, 이렇게 딜레이하면 한 달 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답변서를 내주시고 이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회 규정, 정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감사님, 말씀하십시오.

○ 감사 최기화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번에 의제로, 보고 의제로 잡히면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배포해 드린 보고서는 일단 회수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는 이사들 있음 ]

○ 이사 이준용

다음 이사회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발언권을 받으시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먼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말씀 주십시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방금, 진행발언 잠깐 말씀드리면,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말씀 주십시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감사실의 자료는, 그거는 자리에다 두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알겠습니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질의하여 주신 규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까지 확인한 부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회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다만, '규정에 대한 입안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관에 따르면 규정의 제정 및 개편의 입안자는 규정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 저희가 또, 제가 모르는 다른 규정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은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럼 결국 규정 개정의 안 제안은 이사국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네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아마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사회 관련해서는 제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사님들께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 보완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정관 개정..

○ 사장 김유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이사 류영호

예.

○ 사장 김유열

규정 개정은 기본적으로 조법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서로 상충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정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지 문구를 몇 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상위 법령과 EBS의 하위 규정의 위반 여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고, 아마 내부 방침 이런 거는 이사회 의결로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관 개정은 또 다른 겁니다. 정관 개정은 방통위, 제가 알기로는 승인받아야 됩니다. 정관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관도, 또 정관도 아마 방송 관련법이나 기타 법의 충돌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아마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류영호 이사님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가처분은 저희들이 딜레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와서 준비를 하고, 조법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간단한 답변서를 내고 갈 것 같고, 법원에서 이걸 아주 긴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아마 조법에, 조법 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이걸 한 달 좀 넘을 것 같다.’ 이런, 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도 조법 부장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류영호 이사님 말씀드렸던, 제 난처함이 뭐냐 하면, 저는 방어를 하긴 해야 됩니다. 피고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기 ‘느슨하게 방어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건 저는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고로 있는 이상 피고의 입장에서 충분히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류 이사님,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신, 또 사장이 굉장히 열심히 방어를 해서 섭섭해 하실 수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게 아니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 이사 이준용

우리가 낸 거는 유시춘 이사, 선임 과정 이런 게 문제기 때문에 한 건데, 법원에서는 판사가 판단하는 데는 대표자가 ‘김유열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EBS는. 그렇기 때문에 사장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내면서 대표이사 사장 께 가는 건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당사자인 유시춘, 지금 이사장이라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법원에서 디테일한 게 어떤지 몰라서.

○ 사장 김유열

그것도 제가 이준용 이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조법에 물어봤어요. ‘왜 내가 피고가 되는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사회도 EBS의 기관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유시춘 이사장 개인한테 낸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 자체가.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게, 이사장님 하나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민사소송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송도 저도 그래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일 줄 알았는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돼 있어서 제가 피신청인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소송 자체가 다른 형태였으면 모르겠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의 직무정지 소송이었으면 그건 좀 더 다르게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만약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면, 그러면 유시춘 이사장이 피고가 되느냐?’라고 조법에. 그런데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조법에. 그랬더니 ‘그것도 아마 사장님이 피고여야 될 것 같다. 법원에서 그렇게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아마 이사님들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준용 이사님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들의 어떤 저기, 실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고맙습니다.

오늘 상정되지 않아서 논의 못 한 안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그러면 다음 이사회는 언제 할 건가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진행발언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음번 이사회가 원래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린 것은 11월 21일 목요일을 정기이사회가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로 정했는데요, 안내를 일단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4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1월 21일로 했는데, 혹시 이 일정에 이사님들께서,

○ 이사 류영호

7일 간담회는 안 하고요? 7일날 간담회도 있잖아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11월 7일날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사 이준용

이사회로 전환하면 아니 될까요?



- 이사 문종대  
반대입니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11월 7일날 것을, 예..
- 이사 류영호  
왜 안 돼요?
- 이사 문종대  
간담회 하지 말지, 무슨 간담회 합니까, 지금. 회사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오늘, 오늘 유 이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이사회를, 임시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또 8일 돼야 되잖아.
- 이사 문종대  
똑같은 동어반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사 류영호  
8일 돼야 되니까 또 7일날 안 되네요?
- 이사 문종대  
필요하면 네 분이 서류를 올리시면, 올리세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간담회는 말 그대로 그냥 간담회입니다.
- 이사 류영호  
간담회는 되는데 임시이사회는 안 되잖아.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임시이사회는, 예.
- 이사 류영호  
안 되잖아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사 류영호

어려움이 있네요.

○ 이사 이준용

간담회로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수능이라니까 협의해 갖고 다시 소집을 날 잡으면 되겠네요.

○ 이사 류영호

그럼 간담회를 7일날 하고, 21일 이사회를,

○ 이사 이준용

그 전에 조정해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기이사회 때 이런 걸 논의하면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 이사 문종대

이 안건을 제일 뒤로 넘기죠. 그럼 되잖아요. 중요한 안건부터 하지.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 마무리하고,

○ 이사 이준용

하여튼 간담회 하시고 이사회 날짜는 소집 요구하면,

○ 이사 류영호

7일날 11시에 그럼 간담회를 광화문에서 하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예, 고맙습니다.

그럼 추후 지금 안건 다 마무리하고 나서 간단하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보고안건 제2024-20호 「이사장 직무연장 무효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건」은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이사 문종대

두 번이나 청취하고 접수한 걸 또 한단 말입니까? 나는 반대..

(폐회 : 18시 17분)

## V. 폐 회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이것으로, 이것으로 한국교육방송,
- 이사 문종대  
도대체 청취하고 한 걸 뭘 또 보고합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아니, 간담회 그럼 11월 7일날,
- 의장 직무대행 김선남  
방송공사 제363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산 회 》